

# 첨단바이오 부스트업, 글로벌 성과 시동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전북자치도, '플랫폼 구축 사업' 3년간 1단계로 추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정희권)과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가 추진 중인 '전북 첨단바이오 부스트업 플랫폼 구축 사업'이 가시적인 글로벌 성과를 내고 있다.

총사업비 183억2천만원(국비 91억6천만원·지방비 91억6천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3년간 1단계로 추진된다. 독성연구팀, 원자력연구팀 첨단방사선연구소 등 8개 기관이 참여해 국가전략기술 연구성과를 지역 신산업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구재단은 지난해 AI 기반 첨단바이오 혁신기업 3곳을 전북에 유치했다. 이들 기업은 미국 AI 첨단바이오 생태계 진입을 위한 공동연구와 기술

실증 투자자금을 확보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에루디오바이오킴(대표 윤성희)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AI 기반 바이오테크 기업이다. 반도체 기반 멀티플렉스 진단 플랫폼(VSA)을 바탕으로 단일 혈액 샘플에서 다양한 바이오마커를 동시에 측정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빌스델리다 게이트 재단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지원받아 기술실증을 추진 중이다.

(주)위트젠바이오테크놀로지(대표 이상운)는 미국 버클리에 기반을 둔 AI·단일세포 분석 전문기업이다. 생체형 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LIBER-X를 통해 멀티오믹스 데이터

를 단일세포 수준에서 정밀 분석하는 기술을 확보했다. 미국 백악관이 주도하는 Cancer Moonshot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선정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 'TPS 글로벌트랙' 1호 기업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오믹인사이트에이아이(대표 유제관)는 미국 산타클라리타에 본사를 둔 AI 기반 공간오믹스 분석 기업으로, 세포·조직 단위 멀티오믹스 데이터를 고해상도로 분석하는 독자 플랫폼을 개발했다. 최근 롯데홀딩스 등으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사업은 바이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유효성 평가, 독성시험, 비임상시험 등 비임상

실증 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 글로벌 비파마와의 연계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생명 산업 기반 역량을 토대로 첨단바이오를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왔다. 이번 글로벌 기술기업 유치를 계기로 AI·멀티오믹스·정밀의료 등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유진혁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장은 "국내 유망 AI 첨단바이오 기업을 발굴해 지역 이전과 투자 유치를 이끌고, 해외 비파마와 연계해 성과를 창출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AI 기반 신약개발과 정밀의료 분야에서 전북이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 “전기안전 기여 공로자 찾아요”

### 한국전기안전공사, 4월 15일까지 공모 접수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가 전기안전 예방과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 전기안전관리 유공자'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접수는 3월 3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포상은 산업현장과 일상생활 속에서 전기안전 예방에 헌신해 온 유공자를 찾아 격려하고, 범국민적인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 속에서도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온 실무자와 관리자 등의 공로를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포상 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제도 정착, 우수 전기제품 개발·보급,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설계·시공·감리, 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기술 향상 및 보급 활성화 등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이다.

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동으로 심사를 진행해 산업현장,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표창, 전기안전공사장 표창 등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 제조기업 '원스톱 혁신' 이끈다

### 전북자치도·전북테크노파크, '스마트 오픈 랩' 가동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가 지역 제조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오픈 랩' 장비 및 시설 지원을 본격화한다.

전북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단이 운영하는 '스마트 오픈 랩'은 설계 시뮬레이션부터 3D 프린팅 기반 시제품 제작(End part), 3D 스캐너를 활용한 정밀 검증까지 제품 상용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패스트트랙(Fast-track)' 인프라를 갖췄다.

'스마트 오픈 랩'은 기능에 따라 두 거점으로 나뉜다. 익산시 함열읍에 위

치한 '기술지원 오픈 랩'은 제품 설계·역설계, 시제품 제작, 품질 검증을 지원하는 기술 혁신 공간이다. 이곳에는 고정밀 레이저 3D 스캐너를 비롯해 SLA(액상), MJF(분말), DED(금속), 바인더젯 샌드, 대면적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산업용 3D 프린터가 구축돼 있다.

또 160kV~600kV급 엑스선 3D 스캐너를 도입해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내부 결함을 분석할 수 있는 비파괴 정밀 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 평가를 지원한다.

원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기술교류 오픈 랩'은 기업과 유관기관, 전문가 간 네트워크 공간으로 활용된다. 최대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라운지와 미팅룸, 세미나실 등을 갖춰 교육과 간담회 개최에 적합하다.

주요 지원 내용은 △3D 설계 및 제조·검증 기술 지원 △데이터 기반 디지털 설계 인프라 활용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이다. 고가 장비를 자체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저비용으로 첨단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되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자동차 서브프레임, 이차전지 배터리 셀, 수소 저장 용기 등 정밀 공정이 필요한 부품의 내부 결함을 비파괴 방식으로 검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미세 균열이나 내부 기공을 사전에 파악해 제품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도면이 없는 부품이나 해외 벤처마킹 제품을 3D 스캐닝 기술로 역설계해 도면화하고, 보안 설계를 거쳐 3D 프린팅으로 목업·시제품·시장상까지 일괄 제작하는 지원도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연구개발 비용과 제작 기간을 절반 이상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스마트 오픈 랩은 단순 장비 대여를 넘어 지역 산·학·연·관 네트워크 거점으로서 제조 기술의 스마트화와 로봇화를 구현하는 현장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북 제조 산업의 대전환과 기업 고도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장비 활용과 기술 지원 관련 문의는 전북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단 스마트융합사업팀(063-720-3703, 3712)로 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 전북도·경진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돕는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이하 경진원)이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미국 아마존 셀러 성장 지원사업'과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 확대에 발맞춰 도내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미국 아마존 셀러 성장 지원사업'은 미국 아마존 입점을 준비하는 초기 기업(아마존 계정 미보유)과 이미 입점한 유망기업(아마존 계정 보유)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한다. 초기기업은 아마존이 인정한 공식 외부사업자를 통해 교육과 상품 입고 등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미국 아마존에 입점한 유망기업은 광고, 프로모션, 콘텐츠 제작 등에 대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받는다.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마케팅 지원사업'은 미국 아마존 외 알리바바, 이베이, 해외 아마존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검색엔진 마케팅과 소셜미디어 홍보 등을 지원하며,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분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주요 품목은 뷰티, 패션잡화, 생활용품, 홈엔터테인먼트 등 소비재 제품이다.

신청 기한은 오는 18일 오후 5시까지이며,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 중소기업 우수제품 맞춤형 디자인 지원 참여기업 모집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 부설 전북디자인센터(센터장 유종길)가 전북 제조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중소기업 우수제품 맞춤형 디자인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전북 지역에서 제조를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제품에 차별화된 디자인을 적용해 시장 선도형 제품으로 고도화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자·전기, 농기계, 모빌리티, 로봇 등 다양한 제조 분야 기업이 대상이다.

과제당 최대 8,000만원이 지원되며, 이를 통해 제품의 부가가치와 브랜드

경쟁력을 높여 수출 확대와 매출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50억원 이상 1,500억원 이하의 전북 소재 중소기업이다. 디자인 경영 의지와 사업화 전략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수혜기업을 선정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9일부터 19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md.jitp.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테크노파크와 전북디자인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 농촌진흥청, 배·사과 개화 전 '과수화상병' 방제 필수

농촌진흥청(청장 이순돈)이 전국 배·사과 재배 농가에 개화 전 과수화상병 방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개화 전후 감염 위험이 매우 큰 병해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사과보다 먼저 꽃이 피는 배는 '꽃눈이 튼 직후'가 방제 적기다. 이 시기에 구리 성분은 포함된 동제 또는 석회유황합제를 살포해야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사과는 '꽃눈이 트고 녹색 잎이 펴지기 직전'이 적절한 방제 시기다. 녹색기와 전엽기가 함께 보일 때 석회보르도액 또는 동제를 살포하는 것이 좋



다.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개화 전에 사용할 수 있는 방제 약제를 지역 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 중기부,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우수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3일 오후 4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은 창업지원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이 보유한 기술과 인프라, 산학협력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기반 및 대학발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국 6개 권역, 11개 창업중

심대학을 통해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757개사를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수도권은 한양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충청권은 호서대학교·한남대학교·충북대학교, 호남권은 전북대학교·전남대학교, 강원권은 강원대학교, 대경권은 대구대학교, 동남권은 부산대학교·경상국립대학교가 참여한다.

신청은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가능하며, 이후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확정한다. /오상근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